

‘김비서’ 신드롬, TTA 순위에서는 ‘어서와’에 살짝 밀려



» 글 민경숙 | TNMS 대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
min.gs@tnms.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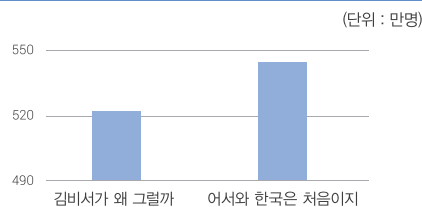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연속 동시간대 지상파 수목드라마 시청률을 제압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신드롬은 통합시청자 순위에서는 이어지지 않고 아쉽게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파라과이 친구’편에 살짝 밀리고 있다. 지난 7월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계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 10회(7월 5일 본방송) 통합시청자 수는 523만4천명이 시청하였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파라과이 친구’편(7월 5일 본방송)은 일주일 동안 545만1천명이 시청하면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21만7천명 차이로 눌렀다.

연령대별 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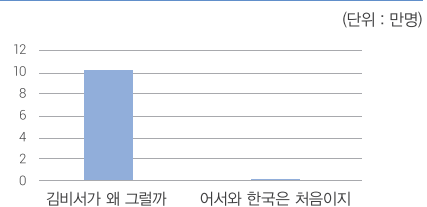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30대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통합시청자 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2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에서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1위를 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KBS1 ‘내일도 맑음’이 1위를 차지하였다.

VOD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확연한 압승을 하였다. 본방 후 일주일 동안 ‘김비서가 왜 그럴까’ 다운로드 시청자 수가 10만3천명이었던 반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파라과이 친구’편 VOD 시청자 수는 2천명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재방송 횟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본방 후 일주일 동안 동일 회차를 13번 재방송했지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파라과이 친구’편은 35번 재방송을 하였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서로 다른 시간대 재방송을 35번이나 하면서 VOD 시청욕구를 줄였다고 볼 수 있겠다. **K A A**

〈표 1〉 통합시청자 수(7월 5일 본방송)



〈표 2〉 VOD 시청자 수(7월 5일 본방송)



〈표 2〉 연령대별 통합시청자 순위 1위(7월 5일 본방송)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김비서	어서와	김비서	어서와	어서와	내일도 맑음